

BIBLIOGRAPHY

1. Adorno, T. W., *Negative Dialektik*, Frankfurt a/M, 1966.
2. Adorno, T. W., *Aesthetische Theorie*, Frankfurt a/M, 1977.
3. Copleston, F., *A History of Philosophy*, vol 7, Garden City, 1965.
4. Diem, H., *Kierkegaard*, tr. by D. Green, Richmond, Va., 1966.
5. Dilthey, W., *Gesammelte Schriften*,  
Band I : *Einleitung in die Geisteswissen Schaften*, Gotingen, 1966.  
Band V : *Die geistige Welt*, Gotingen, 1982.
6. Hegel, *Phenomenology of Mind*, tr. by J. B. Baillie, London.
7. Jansohn, H., *Herbert Marcuse*, Bonn, 1974.
8. Kierkegaard, *Entweder—Oder*, Bd II, tr. by W. Pfeiderer & Chr. Schrempf, 1922.
9. Kierkegaard, *Furcht and Zittern*, 1923.
10. Kierkegaard, *The Sickness unto death*, tr. by W. Wowerie, N. Y., 1954.
11. Kreck, W., *Grundfragen Christlicher Ethik*, Munchen, 1975.
12. Lenk(ed.), K., *Ideologie*, Darmstadt, 1970.
13. Lieber, H-J., *Ideologie—Wissenschaft Grsellchaft*, Darmstadt, 1976.
14. Lindner, B. & Lucke, M., *Materialienzur asthetischen Theorie Th. W. Adornos*, Frankfurt a/M, 1980.
15. Marcuse, H., *Eros and Civilization*, Boston, 1966.
16. Marcuse, H., *One—Dimensional Man*, Boston, 1964.
17. Panneberg, W., *Grundfragen Systematischer Theologie*, Gotingen, 1971.
18. Parsons, T.,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 II, N. Y., 1968.
19. Scheler, M., *Der Formalismus in der Ethik und die Materiale Wertethik*, Halle, 1921.
20. Scheler, M., *Die Wissensformen und die Gesellschaft*, Munchen.
21. Tucker, R., *Philosophy and Myth in Karl Marx*, Cambridge University.

# Philip H. Phenix의 知識理論 研究

金 聖 洙\*

◇ 目 次 ◇

I. 序論
II. 知識의 性格
III. 知識의 分類
IV. 知識의 構造
V. 知識의 探究
VI. 結論

## I. 序 論

現代社會는 科學技術文明의 急激한 發展으로 말미암아 날로 激變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 結果로 因한 知識의 爆發現狀은 現代人에게 커다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教育의 場에도 또한 새로운 變化를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知識의 爆發로 말미암아 배워야 할 知識의 量은 예측도 할 수 없이 급속도로 확대 되었으나 人間의 學習能力은 이에 비례하여 증대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人間의 制限된 學習能力과 有用한 知識의 거대한 膨창과의 不均衡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現代教育의 主要課題中的의 하나이다.

따라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선 世界各國에서 實施하고 있는 教育 改革運動의 當面課題는 知識의 爆發에 對應하기 위하여 教育을 어떻게 改革하느냐를 하나의 主要關心事로 보고 教育을 改善해 갈려고 努力해 왔는데, 디시프린 理論 역시 이같은 노력과 관련된 強力한 學說의 하나로 대두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Phenix는 人間의 可能한 知識領域을 分類하고 그 分類된 各各의 領域에 따라서 代表的인 概念과 構造, 獨特한 探究方法을 바탕으로한 일반적인 原理를 提示함으로써 知識의 量的인 문제를 質的으로 解決하는 하나의 方向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그의 理論을 究明하여 본다는 것은 變化하고 있는 教育의 상황속에서 바람직한 教育改革 方向 摸索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以上과 같은 趣旨에서 本論文에서는 Phenix의 여러 思想中에서 그의 知識理論을 究明하여 體系化해 보는데 研究의 目的을 두었다.

\* 부교수, 교육철학 전공

## II 知識의 性格

知識은 主體를 통한 對象의 驗인 까닭에 知識은 主體는 勿論 對象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모든 人間知識은 intelligent creatures 와 intelligible objects 間的 關係에서 생겨난다.<sup>1)</sup> 그러나 이 主體및 對象의 本質과 性格을 서로 달리 規定함에 따라 認識論의 여러 方向이 생겨난다.

Phenix는 知識의 對象을 實在하는 것으로 본다. “事物의 構造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이다… 事物의 性質은 選擇的인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다”<sup>2)</sup> 는 Phenix의 주장을 보면 그는 認識對象이란 人間의活動 即 探究에 依해서 언젠가는 發見되기를 기다리며 實在하고 있다는 實在論의 立場을 取하고 있다.

그러므로, Phenix에 依하면 知識이라는 것은 實在하고 있는 認識對象內에 담겨져 있는 眞實在가 人間을 다른 動物과 區別시켜 주는 知性(intelligence)의 活用<sup>3)</sup>을 통하여 發見되어져 一團의 組織화된 專門家들에 依해서 개발된 정당화의 基準에 依하여 검증<sup>4)</sup> 되는 人間의 知性的 活動의 한 產物<sup>5)</sup> 곧 바꾸어 말하면, 實在하는 對象의 眞實在를 찾아내는 학문적인 探究의 結果<sup>6)</sup>가 바로 知識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知識에는 학문적인 知識(disciplined knowledge)과 非 학문적인 知識(nondisciplined knowledge)이 있는데, 학문적인 知識이란 Phenix에 依하면 發見되는 知識을 一定 基準에 依해서 體系化한 것이며 非학문적인 知識이란 人間經驗 或은 活動에 依해서 이룩된 그대로의 非體系化되어 있는 知識이다. 바꾸어 말하면, 知識의 個個項目들이 어떤 관념 體系(idea - system)內에서 相互聯關지워져 있는<sup>7)</sup> 知識體가 바로 學問的인 知識이라는 것이다. 特別히 Phenix는 非학문적인 知識은 教授와 學習에 不適當하며, 教育的이지 못하다고<sup>8)</sup> 하면서 학문적인 知識을 教育的으로 아주 重要視하고 있는데, 이 학문적인 知識의 總體가 바로 디시프린이므로 Phenix가 論하고 있는 知識의 性格을 보다 分明히 밝히기 爲해서 디시프린에 對해서 고찰해 보자.

- 1) Philip H. Phenix, *Education And The Common Good*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61), p.35.
- 2) Philip H. Phenix, “The Disciplines As Curriculum Content,” *Curriculum Crossroads*, ed. by A. Harry Passow (No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1962), p.651.
- 3) Philip H. Phenix, “Values in The Emerging American Civiliz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Vol.61, No.7.(April, 1960), 358.
- 4) Philip H. Phenix, *Realms of Meaning* (New York : McGraw-Hill, 1964), p.313.
- 5) Philip H. Phenix,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Holt, 1966) p.297.
- 6) Phenix, *Realms of Meaning*, p.313.
- 7) Philip H. Phenix, “Key Concepts and The Crisis in Learning,” *Teachers College Record*, Vol.58. No.3. (Dec., 1965), p.139.
- 8) Phenix, *The Discipline As Curriculum Content*,” p.58.

Phenix는 디시프린을 語源的으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디시프린이라는 말은 라틴語의 discipulus에서 끌어 내어진 것인데, 이 discipulus라는 말은 ‘弟子’ 즉, 다른 사람으로 부터 教授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discipulus는 “學習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discere라는 動詞로 부터 由來한다. 그래서 語源的으로 디시프린이란 教授에 그의 적당성이 있고 學習에 그의 유효성이 있는 特殊한 屬性을 지닌 知識으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디시프린은 教授를 爲하여 組織된 知識인 것이다.”<sup>9)</sup>

디시프린에 對한 諸學者들의 定義는 대체로 디시프린을 定義지움에 핵심이 되는것, 곧 概念으로 形成된 體系인 知識體라는데는 共通性을 가지나 이를 說明하는 部分에 教育的인 用語를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差異를 보이고 있다. 즉 A. W. Foshay 나 F. B. Stratemeyer<sup>10)</sup> 등은 디시프린을 定義 지움에 있어서, 體系化되어 있는 知識體 或은 探究樣式이라는 主概念을 가져 오지만 이를 說明하는 部分에서는 教育的인 用語를 使用하지 않는다. 그러나 以上에서 내린 Phenix의 定義를 보면 組織된 知識體라는 主概念을 說明하는 部分에 教育的인 用語를 사용하여 教授를 爲하여 組織된 知識體라고 定義지우고 있는 것이다.

디시프린이 教授를 爲하여 組織된 知識體라는 이러한 定義는 디시프린의 特徵은 바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知識이 教育的인 것, 곧 그것은 特別히 教授와 學習에 알맞게 되어 있다는 意味이다.<sup>11)</sup> 즉 디시프린은 그 本質的인 性格에 있어서 가장 效果的인 教授를 爲해서 組織된 知識體라는 것이 Phenix의 主張이다. 그러면, 디시프린內의 知識을 이렇게 效果的인 教授에 適合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무엇이나? 여기에는 3個의 根本的인 特徵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分析的단순화(Analytic Simplification), 綜合的 統合(Synthetic Co-ordination), 역동성(Dynamism)의 3가지이다.<sup>12)</sup>

### 1) 분석적 단순화(Analytic Simplification)<sup>13)</sup>

效果的인 教授에 主要한 것은 단순화이다. 모든 明瞭度는 감각과 상상에 부딪치는 印象의 多樣性을 根本的으로 축소시키는데 달려 있다. 그런데 Symbol은 경험의 복잡성을 철저하게 단순화 시켜 준다. Symbol의 利用을 통한 이러한 경험의 단순화는 分析的이라고 불리워진다. 모든 概念은 一般化 및 集團化(grouping)의 目的을 爲해서 여러 事物을 分析해서 어떤 特徵을 끌어낸 하나의 抽象이다. 抽象의 機能이란 단순화 하는것, 즉 여러 種類의 事物의 어떤 共通屬性을 選擇하고 그 外 다른 特徵들을 無視함으로써 경험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나의 디시프린이란 雜多한 知識의 無分別한 結合體系가 아니고 諸知識의 類似性과 相異性에 依하여 分析, 分類되어 정리되고 또 同一한 많은 屬性들이 概念形成의 過程을

9) *Ibid.*, pp.57-58.

10) 이경섭, *현대교육과정론*(서울 : 형설출판사), pp.75-76.

11) Phenix, “The Disciplines as Curriculum Content,” p.58

12) *Ibid.*, p.59

13) *Ibid.*, pp.59-63.

通하여 抽象되어 體系있게 질서지워지고 단순화된 하나의 概念的 體系이다. 다시말하면 디시프린에 內在하고 있는 知識이란 그들이 共有하고 있는 여러 種類의 어떤 共通屬性에 의하여 分析 선택됨으로서 無關係한 諸特徵은 제거된 知識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知識들은 理解를 단순화시켜줄 수 있다.

知識은 하나의 디시프린 속으로 더욱 깊이 나아 갈수록 더욱더 복잡하게 되어지지는 아니한다. 만약 그것이 하나의 참된 디시프린이고 博識의 陣列을 爲한 단순한 한 分野가 아니라면 디시프린 속으로 知識이 나아갈수록 分析이 보여주는 理解의 단순화는 더욱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物質의 原子理論은 物質界의 無限한 복잡성의 理解에 많은 단순성을 가져다 주었으며 마찬가지로 Darwin의 理論은 生物體의 諸種에 對한 理解를 단순화시켜 주었다. 따라서 디시프린 가운데서 發見되어지는 知識의 이러한 特徵은 효과적인 教授와 學習을 可能하게 해 준다.

### 2) 綜合的 統合(Synthetic Co-ordination)

綜合的 統合이란 새로운 全體의 構成 즉, 有意味한 一貫된 構造로의 諸要素의 統合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綜合的 統合은 그 傾向성에 있어서 分析의 단순화에 反對되는 것이 아니라 兩者는 知性的인 配列의 한 共通된 過程의 側面들이다.

그러므로 어떤 질서 정연한 全體內에 있는 部分들의 概念은 部分들의 개념에 의하여 예상되어지는 分化와 全體의 개념에 의하여 의미지워지는 統一, 이 兩者를 모두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곧 하나의 디시프린은 分析을 통한 類似性的 識別에 의하여 可能하게 되는 개념의 한 綜合的 구조로서 그것은 相異性 가운데 統一性으로 질서지워진 개념들의 단계(Hierarchy)이다.

이것은 바로 원시적인 경험의 난잡한 多樣性이 概念的 抽象에 의하여 단순화되며 그 다음에 이러한 抽象들은 더욱 더 포괄적인 Co-ordination의 類型들 속으로 綜合化되는 경험의 재구성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으로 소박한 경험은 諸印象의 無意味한 혼란상태에서 부터 비교적 有意味한 理解의 類型으로 一變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諸概念들은 이미 고립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相互連關과 諸關係內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디시프린은 諸 概念의 한 共同體(Community)이다. 人間이 고립해서 살아갈 수 없으며 相互連關을 갖고 타인의 支持를 必要로 하는 것 처럼 고립된 idea는 시들고 죽어지는 것이다. 反面 디시프린에 統一 지워져 있는 idea 들은 活潑하고 強力하게 살아 남는 傾向이 있다.

### 3) 역동성(Dynamism)

역동성이란 더욱 깊은 理解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意味한다. 각 디시프린은 知識의 씨앗이며, 그 知識의 씨앗의 諸要素들은 同一한 種의 더 많은 要素들을 生殖하는 生産的인

相互作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그러므로, 디시프린은 그 自體內에 成長의 原理를 所有하고 있는 살아있는 知識體이다. 이러한 디시프린內의 諸idea는 단순히 단순화하고 종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以上の 分析과 종합을 가져오며 더 以上の 탐구를 爲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것의 idea는 보다 큰 一般化와 統合의 再構成的인 양식을 마련해 주는 새로운 구성을 提示해 주는 것이다. 디시프린內의 idea들은 概念의 群(families)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이들 群들은 또한 子孫을 번식키는 번식력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效果的인 教授를 可能하게 해주는 特徵이다.

학문적인 知識이 지니고 있는 이와같은 세가지 特徵은 효과적인 教授를 可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히 학문적인 知識과 非학문적인 知識과를 區別지워 주는 基準이 되는 것이다. 勿論, 학문적인 知識과 非학문적인 知識間에 예리한 分割線은 없다. 一極端으로는 어떤 組織化된 디시프린에 內在하지 않는 知識의 고립된 部分들이 있으며 또한 他極端으로는 학문적인 것으로 이미 認定된 아주 分명한 理論의 構造들이 있다. 이 중간에 디시프린의 모든 정도를 가지고 있는 知識體들이 있다. 아마도 弱한 디시프린, 그리고 強한 디시프린 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差異는 그들의 內容이 教授性的인 세가지 基準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다.<sup>15)</sup> 그러므로 더 以上の 의문과 탐구를 자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험의 資料를 組織만 하는 知識은 비교적 非학문적인 知識이라고 말할 수 있다.

以上에서 論及한 바와 같은 教授性的인 세가지 基準을 잘 만족시키는 디시프린은各自 獨特한 Outlook, 思考양식, 개념의 구조를 所有하고 있으며, 獨特한 領域을 가짐과 同時에 固有한 傳統을 가지고 發展해 간다.<sup>16)</sup> 이와 같은 獨特한 論理에 의하여 각 디시프린은 어떤 特定知識項目이 그 디시프린에 屬하는지 않는지를 判斷하는 기준을 제공해 주며 또 만약 屬한다면 그 領域內의 他구성 要素와 어떻게 그것이 함께 어울리느냐를 보여 준다. 이러한 諸원리가 각 디시프린을 特徵지워 준다. 곧 物理學이라는 디시프린은 어떤 方法的(Procedural)規準에 의하여 규정되어지며 역사라는 디시프린은 다른 一連의 規準에 의하여 규정된다. 각 디시프린은 그 自體의 諸원리에 의하여 特徵지워진다.<sup>17)</sup>

이렇게 獨特한 論理를 所有하고 있는 디시프린은 專門的인 諸 探究者들의 協同에서 생겨나는데 이들 전문가들에는 두 種類가 있다. 첫째는, 반성(Reflection), 熟慮(Deliberation)에 의하여 活動하지 아니하고 이미 定해진 그들의 전문기술의 유형에 따라 기계적으로 活動하는 Skilled Workers와 둘째는, 그들의 實行이 고도로 기술적이지만 기계적으로 活動하지 아니하고 自己들의 行動의 의미를 理解하고 그 行動에 對한 충분한 理由를 낼 수 있는 반성적인 方式으로 作用하는 Men of Knowledge이다. 디시프린이란 이들 두 種類의 專門家들 中에서도

14) Philip H.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Education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ed. by Stanley Elam (Chicago : Phi Delta Kappa, 1964), 51.

15) Phenix, "The Disciplines As Curriculum Content" pp.63-64.

16) Phenix, *Realms of Meaning*, p.53.

17)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p.47-48.

Men of Knowledge의 特殊한 集團이 추구하는 組織화된 探究領域 이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現存하고 있는 디시프린들은 이들 Men of Knowledge의 집단이 발견해낸 生存力이 있는 知識의 類型들인 것이며 아마도 이와 같은 많은 類型들이 아직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디시프린이라는 用語는 이-連의 不變하는 固定된 기준 지식분야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人工頭腦學, 擬似心理學, 게임의 理論, 우주항공학 등과 같은 새로운 디시프린들이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生化學 및 歷史科學과 같은 새로운 結合이 形成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이미 확립된 많은 기존 디시프린들도 급격한 內的 變化를 겪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現代心理學, 음악, 역사 및 神學等이 그것이다. 사실상 불과 몇십년前的 그것과 비교해서 오늘날 아직도 여러 중요한 점에서 同一한 학문의 分野는 별로 없다.<sup>19)</sup> 더욱이 最近에는 모든 分野에서 知識의 급속한 팽창과 더불어 많은 새로운 디시프린들이 생겨났으며 이런 發達이 계속되어 갈 것이라고 한다 디시프린은 生成하고, 또한 변형을 겪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소멸한다. 곧 知識이 發達되어질 수록 보다 나은 組織원리들이 나타나며 낡은 디시프린은 쇠퇴하고 새로운 領域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sup>20)</sup> 하나의 디시프린이란 認知的 結果를 생산할 수 있는 諸 아이디어의 體系이며 발생적 가능성이 입증된 獨特한 종류의 知識이기 때문에 마치 生物界에 있어서 種이 그들의 진화過程을 계속하고 不適應으로 소멸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번식력(generative power)이 없으면 소멸한다.<sup>21)</sup>

要컨데 Phenix에 依하면 디시프린의 현저한 特徵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知識이 敎育的인것, 곧 그것은 效果的인 敎授와 學習에 알맞게 되어 있다는 것이며, 각 디시프린은 모두 다른 디시프린과는 다른 獨特한 論理를 所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諸디시프린은 一連의 不變하는 固定된 기준 知識分野가 아니라 生物界에 있어서 하나의 種과 같이 生成하고 消滅한다.

### III. 知識의 分類

諸 事物을 分析하여 分類한다는 것은 人間の 精神이 概念을 抽象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事物의 特徵, 성질, 및 형태들을 識別할 수 있기 때문에 可能的 것이며,<sup>22)</sup> 이러한 活動은 곧 經驗의 對象가운데 存在하는 어떤 類似性的의 認識에 근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人間の

18) Phenix, *Realms of Meaning*, p.313.

19) *Ibid.*, pp.10-11.

20) Philip H. Phenix, "Key Concepts and The Crisis in Learning," *Teachers College Record*, Vol.58, No.3, (Dec., 1965), 140.

21)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op.cit.*, p.49.

22) Phenix, "The Disciplines As Curriculum Content," p.60.

精神은 알게 되어질 수 있는 많은 概念들 가운데 어떤 主要한 一群의 類似點들을 識別할 수 있으며 類型的의 이러한 諸 유사점들은 알려진것(What is Known)을 物理學, 心理學, 文學評論등과 같은 知識의 領域 或은 敎材領域으로의 分類를 可能하게 해 준다.<sup>23)</sup>

유사성과 상이성의 區別에 依하여 諸 實體가 어떤 질서정연한 형식으로 나누어지고 정리되는 이러한 分類의 過程은 여러 實體에 對한 定義와 注意깊은 記述이 어떤 共通된 屬性에 따라 等級지워지는 課程이며,<sup>24)</sup> 그러므로 하나의 "class"라는 것은 어떤 共通된 屬性이나 一連의 屬性들을 共有하는 事物의 어떤 Collection 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5)</sup> 이와같이 事物을 그 共通屬性에 따라 分類지운다는 것은 Phenix에 依하면 明白한 實體들이 어떤 형식적인 同一性(identity)에 따라 關係지워지는 하나의 等級概念(class-concept)의 形成을 의미하는 것이며,<sup>26)</sup> 이러한 개념의 形成을 通하여 관련성 없는 많은 印象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無數한 經驗들이 질서와 調和를 이루어 일단의 전혀 相異하며 분리된 項目들로서의 經驗의 무익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 "要求되는 예지는 새로운 知識의 밀려오는 조수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막대한 노력에 依하여 達成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過去의 축적된 秘藏物을 파악하기 爲한 광적인 企圖에 의해서 달성되어 질 수 있는것도 아니다. 人間の 知性이 經驗의 복잡한 다양성에서 부터 항상 질서와 단순성을 가져다 주는 한가지 확실한 방도는 말하자면 概念形成의 과정인것 같다"<sup>27)</sup> 고 Phenix는 말하고 있다.

事物을 그 共通屬性에 따라 分類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가능한 범주화들이 어떤 다른것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곧 知識의 對象과 그것이 획득되어지는 類似性에 따라서 사람에 관한 知識, 自然 事物에 관한 知識, 諸思想에 관한 知識等과 같이 그의 對象에 따라서 分類될 수 있으며 感覺, 추리, 直觀, 啓示等에 依해서 처럼 그것이 어떻게 획득되어 지는가에 따라서 분류되어질 수 있다. 그것은 唯一性的의 한 극단에서 광범한 一般性的의 他 極端에 이르기 까지 特殊性的의 정도에 따라서 組織되어질 수 있다.<sup>28)</sup>

그러면 知識을 分類함에 있어서 어떤 分類基準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分類라는 것은 어느 한가지 또는 몇가지의 방식만으로만 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分類하는 기준에 따라서 많은 종류의 分類體系가 可能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어떤 資料群이 연구자에게 强要하는 分類의 단일기준은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分類라는 것은 다소 임의적이며 그것이 의도하는 바 目的에 따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分類는 그 원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結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sup>29)</sup>

23) Phenix, "Key Concepts And The Crisis In Learning," p.139.

24) Phenix, *Philosophy of Education* p.372.

25) Phenix, *Education And The Common Good*, p.161.

26)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45.

27) Phenix, "Key Concepts and The Crisis in Learning," p.143.

28)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p.46-47.

29) 이경섭, *현대교육과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73). pp. 280-281.

예를 들면 人間은 거주지, 수입, 피부색, 교육정도 或은 많은 다른 要因들에 따라서 分類될 수 있다. 이들 各各의 體系는 相異한 群을 形成하며 또 이들 各各은 人들을 組織하는 合理的인 方法인 것이다.<sup>30)</sup> 따라서 各各의 分類方法은 그 나름대로의 獨自의인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分類體系는 어떤 目的에 봉사하기 爲하여 고안되어 지는데 어떠한 分類體系가 좋은 것이냐 좋지 못한 것이냐에 關한 問題는 그것이 봉사하기 爲하여 고안되어진 그 功能에 적합하나 하지 못하나에 依해서 答해질 수 있는 問題이다. 즉 수입정도에 따라서 人들을 分類지운 體系는 수입稅 評價의 目的을 爲해서는 탁월한 기초가 되지만 教育的 機會를 提供해 주는 目的을 爲해서는 빈약한 기초가 될 것이며, 연령, 性別, 職業, 수입에 依한 分類는 各各 보험금액, 의복, 노동시간, 세금등과 같은 實際적인 問題에 各各 적절하다.<sup>31)</sup>

마찬가지로 知識의 分類에 있어서도 어떤 分類體系를 知識에 利用할 것인가를 決定하기 爲하여 我們들은 그 分類가 봉사하기 爲하여 고안된 그 功能에 關해 分明해져야만 한다. 만약 여러나라의 知識產出의 單位(Credit)를 할당하려고 하면 發生地域은 그 分類의 적절한 體系가 될 수 있다. 만약 監官, 理性, 直觀 및 啓示에서 推論된 知識에 對한 先行 Scale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어떤 知識이 가장 價値로운 것이며 Study resource가 어떻게 할당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關한 判斷은 이러한 획득양식에 기초를 둔 知識의 分類를 必要로 하는 것이다.<sup>32)</sup>

教育에서 知識을 分類지우는 目的은 學習을 容異하게 하기 爲한것이기 때문에 論理的 構造의 一般的 類似性이라는 基準에 따라 知識을 分類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33)</sup> 다시 말하면 高度로 발달한 現代科學技術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知識이 처음 倍로 불어나는데는 1750년이 걸렸고, 그다음 倍로 불어나는데는 약 150년이, 그다음은 50년, 이제는 다만10년만에 倍로 되었다는 미국 N. E. A. 의 보고와 같이,<sup>34)</sup> 知識의 加速現象은 때로는 그 분야의 學者들에게도 놀라운 정도이며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人으로서 그 學問의 本質적인 要素를 理解하려고 하는 人들에게는 더욱 놀라운 것이 되고 말았다. 지식은 심지어 전문가들까지도 그들 자신의 諸 분야에서 學習되어지고 있는 모든 것에 보조를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고 더군다나 自己 전문분야 以外의 探究分野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극히 부분적으로 밖에 알 수 없게 되었다.<sup>35)</sup> 그러나 人間의 學習能力은 이러한 知識의 加速現狀과 어깨를 나란히 맞추어 증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學習에 있어서 위기가 존재한다고 Phenix는 보고

30)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46.

31) Phenix, *Education And The Common Good*, p.168.

32) Phenix, "The Arcitectonics of Knowledge," p.47.

33) Philip H. Phenix, *Realms of Meaning* (New York : McGraw-Hill, 1964), p.25.

34) Ross L. Neagley & N. D. Evans, *Handbook for Effective Curriculum Development* (N. J. : Prentice-Hall, 1967), p.35.

35) Phenix, *Realms of Meaning*, p.37.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爲해서는 知識의 論理的 構造의 유사성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知識을 分類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디시프린들의 一般的인 分類는 論理的 근거위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구조적으로 유사한 論理는 教育에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디시프린에서 다른 디시프린으로 전이 될 수 있는 學科들의 共通的인 諸 特徵을 지적하고 그림으로써 學習의 不必要한 중복을 제하고 諸關係의 통찰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sup>36)</sup>

이와 같은 分類기준원리에 따라서 知識을 分析, 分類한 結果는 많은 경험들 가운데 어떤 同一性上에 기초를 둔 知識의 諸등급개념(Class-concept)의 形成을 分明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教育적 경제성에의 한 단서를 提供해 준다. 등급개념을 形成하지 않고서는 個個 事像 하나하나에 다 關係하여야 하므로 人間의 노력의 경제화 될 수 없지만 많은 수의 相異한 事物들의 여러 범주가 明確히 되어지는 점에서 마치 그것들이 同一視되는 것처럼 취급함으로써 知性的인 많은 노력은 경제화 된다. 이런 양식으로 그 계급 特徵에 關하여 한 계급의 어떤 member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역시 그 계급의 모든 다른 member들에게도 적용된다.<sup>37)</sup> 예를 들면, "개"라는 개념은 지적될 수 있는 諸 共通屬性을 지닌 實體들의 전체 부류를 나타내 보여 준다. 개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爲해서 우리는 이 動物집단의 모든 members를 알아야 될 必要는 없는 것이다. 이리므로 概念形成에 依하여 經驗의 거대한 단순화가 가능하게 되며 個個項目들의 다양성은 일반적 ideas로 理解되어 진다.<sup>38)</sup> 特別히 知識의 범주들은 많은 知性的인 인지적 경험을 理解함에 있어서 그 理解를 分明하게 해주고 노력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

"관례상 物理學 領域에 包含되어 있는 많은 特殊事實과 理論들에 精通하게 됨으로써 아니고 個個項目들이 이 領域에 배당되게 한 이들 共通特徵들을 理解함으로써 "物理學을 아는것(Know Physics)"이 可能하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을 아는것"은 무엇이 特定的 事實을 物理學이나 歷史 혹은 예술보다도 심리학에 屬하도록 만드는 가를 精確하게 理解하는데 있을 것이다."<sup>39)</sup>

學習에 있어서 最上의 進보가 最短時間內에 일어나는 양식으로 조직되는 이러한 部類는 Phenix에 依하면 바로 人間知識領域에 對한 哲學的 分析에 依하여 얻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諸 分析結果의 적용을 通하여 學習에 있어서 경제성이 달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다른 方法으로 말하면 轉移라는 心理학적 개념을 利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知識의 범주화는 하나의 아는(Knowing) 상태에서 同一한 종류의 또 다른 아는 상태로의 學習의 轉移를 가능하게 만든다. 特徵的인 아는 方法들(Ways of Knowing) 속으로 知識을

36)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54.

37) *Ibid.*, p.45.

38) Phenix, "Key Concepts and the Crisis in Learning," p.139.

39) *Ibid.*, p.139.

分類함으로써 교육자는 각각의 아는 방법 내에서, 한 요소에서 다른 요소에의 전이를 이용함으로써 학습노력을 확실히 많이 절약할 수 있다.<sup>40)</sup> 뿐만 아니라, Phenix는 이러한 지식의 분류가 일반 교육에 있어서諸학과(Studies)의 Scope를 결정하는 理論的 근거와<sup>41)</sup> Course조직의 가능한 一般的 유형들을 제공해 주므로 教授資料를 組織하는 可能的 理論的 양식을 규정하는데 利用될 수도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면 Phenix는 이러한 분류기능에 적합한 어떠한 분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알기를 要求하는 것에 關한 理論的 諸 特徵의 分析은 9個의 一般的인 知識部類가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例示되어질 수 있다. 즉 모든 認知的 의미는 두개의 領域 즉 外延과 內包 或은 量과 質을 가진다. 말하자면 知識이란 인식대상(Known Objects)의 어떤 領域과 인식주체(Knowing Subject)와의 關係에서 成立하고 그러한 各 關係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다. 外延에는 3개의 程度 즉 단일적인것(Singular), 一般的인것(General), 포괄적인것(Comprehensive)이 있다.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或은 선택된 복수에 관한 것이거나 아니면 全體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知識의 內包에도 역시 3종류 즉, 사실(Fact), 형태(Form), 및 규범(Norm)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의미의 質은 實存的(Existential), 형식적(Formal), 또는 評價的(Valuational)인 것이다. 內包的인 유형을 다른 方法으로 表示하면 모든 認知的의미는 現實性(Actualities)이나 아니면 可能性(Possibilities) 또는 當위성(Obligations)중 어느것에 關係된다고 말하는 것이다.<sup>42)</sup>

以上の 말에서 보면 Phenix는 모든 認知的 의미는 外延과 內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外延을 다시 세가지 基準으로 나누어 단일한 事物에 관한 지식은 단일적인것, 선택된 복수에 관한 지식은 一般的인것, 전체에 관한 지식은 包括的인 것에 包含시키고 內包도 또한 세가지 基準으로 나누어 實際로 存在하는 것은 事實에, 상상에 依한 可能性은 形態에, 마땅히 그러하여야 하는 것은 規범이라는 基準에 각각 包含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9個의 包括的 知識部類들은 이러한 3個의 內包的인 性質과 外延的인 程度를 짝 지음으로써 획득되어 진다.<sup>43)</sup> 이 두가지 特徵을 各各 짝 지워 보면 知識은 單一적사실(Singular Fact), 單一적형태(Singular Form), 單一적규범(Singular Norm), 一般적사실(General Fact), 一般적형태(General Form), 一般적규범(General Norm), 包括的사실(Comprehensive Fact), 包括的形態(Comprehensive Form), 包括的 規범(Comprehensive Norm)이라는 9個로 분류되어 진다.

以上과 같은 分類體系 위에서 Phenix는 이들 9個의 包括的 知識部類의 各各에 대해서

40)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p.45-46.

41) *Ibid.*, p.62.

42) *Ibid.*, p.54-55.

43) *Ibid.*, p.55.

그 特徵을 說明하는 同時에 諸 디시프린의 理論的 유형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理論的 구조 위에서 9個의 一般的 部類들로 나누어 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sup>44)</sup>고 하여 分類된 各 知識 領域에 適合한 디시프린들을 결부시키고 있다.<sup>45)</sup>

첫째 單一적사실(Singular Fact)의 知識은 直接的, 個人的인 接觸으로 具體的인 存在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知識은 Knowing의 가장 초보적인 종류로서 他存在에 對한 (또는 自我에 對한) 直接的인 자각을 의미하며 폴라니(Michael Polanyi)가 "個人的知識(Personal Knowledge)"이라고 부른 知識의 종류이다. 그것을 부버(Martin Buber)와 기타 實存主義思想家들은 "나와 너(I-Thou)"의 關係라고 부른다. 知識의 領域에 있어서 이것은 感情的 領域에 있어서 共感과 유사한 것으로 바로 個人的 또는 關係的인 知識을 말한다.

단일적 사실의 知識에 關係되는 디시프린들은 存在에 관한 哲學, 存在에 관한 神學, 存在에 관한 心理學 및 獨特한 個人的 遭遇를 묘사하기 위해서 의도된 文學的인 企圖(特別히 시, 드라마, 소설등에서)에 있는 諸 要人들이다. Phenix에 의하면 哲學, 心理學, 文學, 宗教등의 存在에 關한 디시프린들이 이 單一적 사실의 知識에 包含된다.

둘째, 單一적형태(Singular Form)의 知識에는 實際의 사실과 아무런 關係가 없이 상상력에 의하여 지각되어 어떤 獨特한 特殊대상으로 具體化된 諸의미가 包含된다.<sup>46)</sup> 이 單一적 형태 的인 知識이라는 것은 審美的인 것에 關係하는 것으로서 審美的 重要性은 사실이나 實存에는 關係하지 않고 단지 觀念性(ideality)에만 關係한다. 審美的 지각의 대상은 獨特하고 比較할 수 없는 實體들이며 어떤 表面에 나타나는 사실이나 考察에 關係없이 그 自體로서, 그리고 그 自體에서 향유되어 진다. 지각되는 것은 대상에서 具體化된 이상적인 추상인 것이다. 그러나 審美的 經驗의 의미가 대상의 사실성(facticity)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대상에 依하여 表示된 상상된 抽象의 형태에 있는 것이다. 單一적 형태에 關係되는 디시프린들을 들여보면 여러가지 藝術은 特別히 單一적 형태로서의 知識의 발달에 貢獻하고 있는 디시프린들이다. 곧 그는 음악, 시각예술, 동작예술, 文學이 이 單一적 형태의 知識에 包含된다고 보고 있다.

셋째, 一般적형태(General Form)의 知識은 諸 의미의 表現에 있어서의 一般的인 適用을 爲한 形式的인 類型의 精巧性에 關係되는 知識이며<sup>47)</sup> 이 부류에 包含되는 디시프린으로는 一般的으로 形態에 關係되는, 그러나 (예술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獨特한 諸 대상의 形態에는 關係되지 않는 디시프린들 곧 日常生活의 言語, 수학 및 非推論的 상징적 형태들이 包含된다.

넷째, 一般적사실(General Fact)의 知識은 物質的인 진리(material truth)에 關係하며 (言語,

44) Phenix, *Realms of Meaning* p.26.

45)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p.55-60.

46) Phenix, *Realms of Meaning*, p.27.

47) *Ibid.*, p.26.

수학, 논리학에 있어서와 같이) 형식적 정확성에는 關係하지 아니하는 知識이다. 意味의 表現에 一般的으로 適用되는 一般적 형태가 實際 存在하는 일에 관한것일때 그것은 科學이란 特殊한 부분에서 다루는 知識이 되는데,<sup>48)</sup> 이들 知識은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에서 研究된 바와 같이 實際世界에 대한 一般的인 法則들과 이론들로서 表現된 物質的 眞理에 關係한다.

여기에 包含되는 디시프린은 많은 구체물을 統合하는 一般化를 取扱하며 諸 屬性의 不變한 諸 事像의 어떤 개연적인 결과를 묘사하는 法則을 取扱하며 또한 이러한 法則이 연역되어질 수 있으며 보다 많은 탐구의 가설을 낳는 一般 理論들을 取扱하는 디시프린들 곧 物理學, 生物學, 心理學, 社會學이 包含된다고 말하고 있다.

다섯째, 단일적 규범(Singular Norm)의 知識은 特別한 도덕적 責務 곧, 人間이 그에게 주어진 상황속에서 그가 실지로 행해야 하는 바에 대한 知識을 追求하려고 할때에 생각하게 되는 어떤 特定한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sup>49)</sup> 도덕이라는 디시프린은 바로 이러한 결정을 이루고 정당화하는 諸方法에 關係되는 디시프린이라고 한다.

여섯째, 일반적 규범(General Norm)의 知識이란 바로 단일적규범이라는 知識의 個個원리의 一般化인데 여기에 包含되는 디시프린 및 앞서 살펴본 단일적 규범과 이 일반적 규범과의 關係에 대해서 Phenix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即 도덕적 行爲의 一般화와 도덕적 원리의 發展은 一般的으로 윤리학이라는 디시프린에 該當되며, 단일적 규범의 知識과 一般的 규범의 知識은 대체로 密接하게 連관을 맺고 있는데 그 까닭은 후자는 전자를 정당화하기 爲하여 어필되며 전자는 후자에 心然的인 資源으로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一般的 규범과 단일적 규범은 모두 이들을 兩사실과 形式的 인습에서 부터 分離시켜주는 責任의 質에 의하여 區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곱째, 包括的 사실(Comprehensive Fact)의 知識은 獨特한 事件의 단일성과 그 事件과 他事件들과의 聯關性的 두가지를 함께 다루어 包括的인 견지에서 現實性에 關係하는 知識이다.<sup>50)</sup>

이 知識에 屬하는 디시프린은 歷史로서, 過去에 生活한 사람들의 existential decisions를 考慮하는 方式에서 實際로 일어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歷史家들의 課業이며, 自己의 綜合的 說明을 구축함에 있어서 歷史家는 모든 다른 部類들에 있는 知識을 使用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덟째, 包括的 形態(Comprehensive Form)는 知識에 대한 형태상의 考察을 하는 모든 種類의 知識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哲學이 여기에 屬한다. 哲學者의 任務는 廣範한 普編性을 지닌 概念을 使用하여 어떤 領域이나 디시프린의 意味를 解釋하는 것이며 이러하므로서 모든 아는 方法(Ways of Knowing)에 대한 概觀的 見解를 提供해 주는 것이다.

48) *Ibid.* p.26.49) *Ibid.* p.27.50) *Ibid.*

아홉째, 包括的 규범의 知識에 대해서 Phenix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sup>51)</sup> 모든 知識의 種類들이 규범적인 特質에 依해서 統制된 概觀的 전망內에서 통합되었을때 그 結果로서 생겨나는 디시프린은 종교라는 학문인데 종교적 知識은 어떤 보다 더 制限된 아는 方法들 속에 包含되어 있지 않는 궁극적 善, 전체의 調和, 완전한 진리로서 간주된다. 종교적 知識은 一般的으로 신앙의 行위를 要求하는 사고인데 이 신앙적 行위에 依하여 궁극적으로 獻身의 價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것에 대한 總體的인 獻身行爲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本質的으로 규범적인 行위에서 知識의 모든 多樣한 部類들이 종합되는 것이다. 단일적 사실의 원초적 諸 關係, 單語와 記號의 一般的인 形態, 審美的 지각의 단일적 형태, 경험적과학의 一般的事實, 特殊한 道德的 諸 行爲와 이들이 참가하는 一般的인 倫理的 諸 原理, 歷史的 過去에 대한 統合的 理解 및 哲學的 說明에 대한 概觀的 통찰이 綜合되어 진다.

以上과 같이 知識의 內包와 外延을 基準으로 分類한 Phenix의 9個 包括的인 知識分類는 그가 人間은 意味를 發見하고 創造하고 表現하는 存在 곧 人間을 意味的 動物로 규정하여 人間理解의 可能한 類型의 分析에서 추출해 낸 諸 意味 領域과 결부지워지는데,<sup>52)</sup> 그는 9個의 知識部類中 2個의 規范적 部類를 “倫理的 領域(ethics)”이라고 명명된 범주에 함께 取扱하고 3個의 包括的인 部類를 “概觀的인 領域(Synoptics)”이라고 명명된 범주하에 함께 取扱하여 “깨닫는것(Synnoetics)”, 審美的인것(Aesthetics), 상징적인것(Symbolics), 經驗的인것(Empirics), 倫理的인(Ethics), 概觀的인것(Synoptics)”이라는 6個의 獨特한 領域을 提示한다.

6個 基本的 意味領域은 모두 獨特한 人間의 기능 즉, 表現과 意味소통, 意味있는 대상의 記述과 構成 및 지각, 관계의 통찰, 옳고 그름의 결정 및 包括的인 理解에 各各 相應하는 것이며,<sup>53)</sup> 이들 領域은 모두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一般的인 論理를 가지고 있고 또한 各 領域內에는 앞서 分類한 9個 包括的 知識部類에 該當된 디시프린들이 그대로 配當되어진다. 그러나 이 디시프린의 配當問題에 있어서는 그 디시프린에 從事하고 있는 專門家들간에 항상 意見의 一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디시프린들은 그 디시프린에서 活動하고 있는 몇몇 학자들을 의미의 한 論理로 기울게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다른 論理에로 기울게 하는 內的장력을 지니고 있다.<sup>54)</sup> 예를 들면 어떤 心理學者들은 그들의 주관적인 生活에서 個人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깨닫는 領域으로 기우는 反面 어떤 심리학자들은 強力한 經驗的 노선을 주장한다.<sup>55)</sup>

同一한 領域內에 배당되어지는 디시프린들 間에는 어떤 一般的인 共通特徵이 있으나, 同時에 모든 디시프린은 다 제각기 다른 디시프린과는 다른 獨特한 탐구方法과 代表的인 概念을 所有하고 있다.

51) *Ibid.*, pp.27-28.52) *Ibid.*, p.21.53) *Ibid.*, p.48.54) *Ibid.*, pp.28-29.55) *Ibid.*, p.29.

첫째, 깨닫는 領域(Synnoetics)에는 단일적 사실의 知識이 該當된다. 이 Synnoetics라는 새로운 用語를 여기에 붙인 이유는 그가 이야기 하고 있는 이 단일적 사실이라는 知識의 유형을 적절하게 나타내 주는 기존개념이 없기 때문에 “명상적인 사고”를 意味하는 희랍어 “Synnoesis”에서 따온 것으로서 이말은 “with”나 “together”를 意味하는 “Syn”과 認知를 意味하는 “Noesis”의 合成語이다. 그래서 Synnoetics라는 새로운 用語는 “관계적인 통찰(re-lational insight)” 또는 “直接的인 자각(direct awareness)”을 의미하기 때문에 個人的, 또는 關係의인 知識이 包含되는 이 단일적 사실이라는 知識領域을 명명하기에 적절하다.<sup>56)</sup>

둘째, 審美的領域(Aesthetics)에는 審美的인 重要性에 關係하는 知識인 단일적 형태의 知識이 該當된다.

셋째, 상징적영역(Symbolics)에는 일반적형태의 知識이 屬한다. 왜냐하면, 이 部類에 屬하는 모든 디시프린들은 Symbol의 체계와 關係있기 때문에, 즉 一般的인 表現機能에 이 바지하며 그들 自體以上の 諸 意味를 指示하는 인습적인 형식적 諸 유형과 關係있기 때문이다.<sup>57)</sup> 이 領域은 모든 領域에 가장 基本的인 領域인데 그 理由는 이 領域에 屬하는 모든 意味들은 社會的으로 容납된 形成과 變形의 法則에 따라 意味를 나타내거나 傳達하기 爲하여 만들어진 임의적인 기호의 構造들로서, 이러한 상징적 體系들은 이들이 各各의 他領域들의 意味를 表現하기 爲하여 使用되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經驗的領域(Empirics)에는 物質界, 生命, 精神 및 社會에 對하여 觀察과 實驗을 基礎로한 事實的 記述, 一般化 및 原理의 設定과 그 說明을 內容으로 하며 證據와 검증의 일정한 규칙에 따라 分析的 추상의 特別한 體系를 구축함으로써 얻어진 可能的 經驗的 眞理로서의 意味를 나타내는 일반적 사실의 知識이 여기에 屬한다.

다섯째, 倫理的領域(Ethics)에는 모두 규범에 關係하는 단일적 규범, 일반적 규범의 知識이 해당된다. 倫理的 領域은 사실이나 지각적 형태 또는 關係의 認識보다도 오히려 義務를 強調하는 道德的 意味를 包含한다. 抽象的인 인지적 理解와 關係가 깊은 科學이나 이상화를 지향하는 審美的 지각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예술 및 相互주관적 理解를 반영하는 個人的 知識과는 대조적으로 道德은 自由와 책임과 신중한 결정을 바탕으로한 個人的行爲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섯째, 包括的사실, 包括的形態, 包括的規範의 知識은 모두 諸 意味를 包括的으로, 그리고 하나의 一貫된 全體로 結合시키는 것이므로 概觀的領域(Synoptics)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henix의 知識分類는 知識의 包括的 分類에 따르면 9個 領域으로 分類되고 意味領域에 따르면 6個領域으로 分類되는데 그 分類된 結果의 表는 다음과 같다.

56) *Ibid.*, pp.6-8.

57)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57.

외포	내연	意味領域	디시프린
단일적인것	사실	깨닫는 것	철학, 심리학, 문학, 종교등의 존재에 관한 面
단일적인것	형태	심미적인 것	음악, 시각예술, 동작의 예술, 문학
일반적인것	형태	상징적인것	일상생활의 언어, 수학 비추론적 상징적인 형태
일반적인것	사실	경험적인것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단일적인것	규범	윤리적인것	도덕적 윤리적인 관심이 미치는 여러가지 特別한 영역
일반적인것	규범		
포괄적인것	사실	개관적인것	역사
포괄적인것	형태		철학
포괄적인것	규범		종교

#### IV. 知識의 構造

대체로 構造의 概念은 어떤 條件이 주어지는 對象, 그 對象의 構造를 이룩하는 要素나 部分, 그리고 그 要素나 部分을 組織 또는 配列하는 Mode나 操作하는 諸 意味에 依해서 이룩된다고 볼 수 있다.<sup>58)</sup> 知識의 構造도 이러한 諸 意味에 비추어 構造의 要素, 構造要素의 조작양태, 곧 구조화的方法, 또 이러한 構造의 價値를 中心으로 考察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構造의 要素에 對해서 고찰해 보면, 知識의 構造를 重視하는 大部分의 學者들이 概念이나 아이디어를 構造의 形成要素로 보고 있다. J. S. Bruner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다른 아이디어를 따르게 하는 知識의 關聯성과 그의 派生을 知識의 構造라고 하고,<sup>59)</sup> 이와 같은 構造란 서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여러 觀察의 누적에 어떤 秩序를 주는 커다란 概念的인 발명품인 까닭에 構造는 우리가 배우게 될 內容에 依의를 주게 되며 새로운 經驗領域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고 하여,<sup>60)</sup> 概念이나 아이디어들이 知識의 構造를 形成하는 要素임을 말하고 있다.

58) 이경섭, “Discipline In The Curriculum Theory : On The Structure of Discipline,” 경북대학교 論文集(文社), 12(1968,12), p.182.

59) Jerome S. Bruner, *On Knowing-Essays for The Left Hand*-(New York : Atheneum, 1962), p.120.

60) *Ibid.*, p.120



또한 J. J. Schwab도 디시프린의 構造는 그 디시프린을 探究하도록 만들어진 敎科를 규정하고 그 敎科의 探究를 統制하는데 必要한 概念들로서 構成되어 있다는 構造의 定義가운데서 概念이 디시프린 構造의 要素임을 밝히고,<sup>61)</sup> 이러한 概念들은 探究의 即刻의인 結果가 아니라 探究의 指導原理이기 때문에 探究의 오랜 過程中에서 찾아내려는 어떤 사실들과 그 事實들에 주어진 어떤 意味는 그 사실에 앞서서 이루어진 의지결정이라고 본다.<sup>62)</sup>

Bruner나 Schwab와 마찬가지로 Phenix도 하나의 디시프린은 分析을 통한 類似性的의 識別에依해서 可能한 概念의 綜合的 構造라고 본다.<sup>63)</sup> 또한 知識의 構造를 주의깊게 分析하면 많은 數의 보다 特殊한 아이디어들의 重要한 共通特徵들을 발췌하는 힘에依해서 區別되는 어떤 Key Concepts를 發見하는 것이 可能하다고 하여 구조의 要素를 概念으로 보고 있다.<sup>64)</sup>

특히 Phenix는 “意味의 領域(Realms of Meaning)”에서 구조의 要素를 代表的인 아이디어 (Representative Ideas)라고 보면서 이 代表的인 아이디어에 對해서 論하고 있다.<sup>65)</sup>

1) 代表的인 아이디어는 代表的인 屬性을 지니고 있다.

代表的인 아이디어는 한 아이디어가 그 속에서 생겨나는 디시프린을 代表하는 아이디어이며 한 디시프린의 類型이나 種類를 나타내준다는 意味에서 하나의 Typical 아이디어이다. 代表的인 아이디어는 디시프린의 主된 特徵을 理解하게 해 주는 概念들이지 보다 덜 重要한 아이디어나 종속 아이디어는 아니다. 곧 그 디시프린의 本질을 나타내 보여 주며 그 디시프린의 完全한 像을 들어내 보여 주는 Subject의 축도인 것이다. 또한 한 디시프린의 Pattern을 代表하며 探究領域의 구조 特徵을 나타내 보여 주기 때문에 한 디시프린을 다른 디시프린과 區別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디어이다. 이 아이디어는 無作爲로 選定된 한 디시프린의 구성 要素가 아니라 한 디시프린 內에서 그들의 對表的인 성질 때문에 選定된 아주 特殊한 要素들인 것이다.

2) 代表的인 아이디어는 단순화의 屬性을 지니고 있다.

한 디시프린을 代表하는 어떤 特徵的인 概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 아이디어들의 徹底한 理解는 그 全體 디시프린의 知識에 相當하는 것인데 對表的인 아이디어는 바로 많은 量의 자료를 代表하는 屬性을 지니고 있는 아이디어이므로 이들을 理解하면 많은 양의 特殊한 各들을 배울 必要가 없도록 해 주고 또한 學習者들로 하여금 細細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디시프린의 지도(map)를 提供해 주기 때문에 단순화의 屬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代表的인 아이디어를 利用한다는 것은 質的인 選擇原理에 依하여 知識의

61) Joseph J. Schwab, "The Concept of the Structure of a Discipline," *The Educational Record*, Vol.43, No.3 (July, 1962), 199.

62) *Ibid.*, p.198.

63) Phenix, "The Discipline As Curriculum Content," p.62.

64) Phenix, "Key Concepts And The Crisis In Learning," p.140.

65) Phenix, *Realms of Meaning*, pp.322-324.

量的인 問題를 解決하는 方法이다. 따라서 代表的인 아이디어의 이러한 屬性을 認定하는 立場에서 보면 知識폭발이라는 은유는 실로 교묘한 비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폭발이란 普通 非統制된 혼돈된 팽창을 암시하는데 만약 知識이 단순화의 屬性을 지니고 있는 代表的인 아이디어에 따라 組織된 디시프린들 內에서 開發되고 있다고 한다면 知識폭발이라는 비유보다는 知識증가 또는 知識은 원기완성하게 健全한 成長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3) 代表的인 아이디어는 成長의 屬性을 지니고 있다.

對表的인 아이디어는 그 形態가 다음의 통찰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입증되고 또 더 特殊한 예증들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成長의 原理와 同一하다. 知識成長의 理由는 어떤 fruitful한 概念들이 發見되어졌기 때문인데 이러한 fruitful한 概念들이 바로 對表的인 아이디어이다. 이렇게 다음의 探究가 繼續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知識이 成長할 수 있도록 해 주는 成長의 屬性을 代表的인 아이디어는 지니고 있다. 이 屬性은 단순화의 屬性과 대립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곧 “하나의 디시프린을 豊富하게 만들며 그 디시프린 內의 知識을 急速하게 팽창하게 하는 바로 그 아이디어들의 理解가 또한 그 디시프린의 學習課業을 단순화시키는 基礎라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인 것이다.”<sup>66)</sup>라고 Phenix는 말하고 있다.

以上の 論述로 보아 하나의 디시프린은 두가지 種類의 아이디어 即 代表的인 아이디어와 非代表的인 아이디어(unrepresentative ideas)로 구성되어 있다는 見解를 취하기 쉬우나 Phenix에 依하면 하나의 디시프린의 內容을 代表性(Representativeness)이라는 바탕위에서 두 개의 區劃으로 나눈다는 것은 實際로 不可能하다. 여기에는 한 디시프린 內에 屬하는 知識의 어떤 項目이라도 그 디시프린을 代表한다는 意味가 있다는 것이다.<sup>67)</sup> 만약에 知識의 어떤 項目이 A라는 디시프린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B라는 디시프린에 더 適切히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디시프린을 代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代表性이란 實際로 程度의 門題이다. 한 敎科 內의 어떤 구성 要素들은 그들이 그 敎科의 전반적인 本質的 特徵들을 보다 分明히 보여 준다는 點에서 다른 구성 要素들 보다 더 代表的인 구성 要素들이란 그 敎科 全體의 本質的인 類型으로 주의를 換氣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特殊한 諸局面으로 換氣시키는 구성 要素들이다.

要컨데, Phenix는 知識의 構造를 形成하는 要素를 代表的인 概念들로 보고 있으며 이들 概念들은 代表的인 屬性과 단순화의 屬性 및 成長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둘째로 構造를 形成하고 있는 概念들의 조작양태, 즉 知識의 構造化에 對한 Phenix의 見解를 살펴보면 그는 Bruner 나 Schwab와는 각각 다른 方式을 取하고 있다.

66) *Ibid.*, p.324.

67) *Ibid.*, p.324.

Bruner에 의하면 如何한 知識領域도 (또한 그 知識領域內의 어떠한 問題도) 다음과 같이 세가지 方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는 어떤 結果를 얻는데 適切한 一聯의 活動에 依하는것(活動의 表象), 둘째는 어떤 概念을 完全히 정의하지 않고 概念을 表現하는 一聯의 概括의인 心像(이미지)이나 圖式에 의하는것(映象의 表象), 셋째로는 命題를 形成한다거나 變形하는 規則이나 法則에 의해서 支配되는 象徴體系에서 도출되는 一聯의 象徴的 또는 論理的 命題에 의하는것(象徴的 表象) 이라고 하여 구조화 하는 方法을 하나에 고정하지 않고 活動的 表象이나 映象의 表象, 象徴的 表象으로 多様하게 구조화할 수 있다고 본다.<sup>68)</sup> 一般的으로 概念이나 아이디어의 구조라고 하면 상징적 表現에만 의거하는것 같이 생각하기 쉽지만 行動으로서 또는 도식으로서 그 構造를 表現할 수 있는 것이다.

Schwab에 의하면 그는 構造를 本체적(Substantive)인 것과 關係적(Syntactical)인 것으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Schwab는 概念들의 領域에 따라 어떤 概念들은 本체적인 概念들로서 本체적 構造를 이룩하고 어떤 概念들은 關係의인 것들로서 關係의構造를 形成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本체적인 構造는 探究를 指導하기는 하나 探究의 主題自體는 될 수 없으며,<sup>69)</sup> 단기간(short-term) 探究의 基礎가 되며 長期間(long term) 探究의 초점이 된다.<sup>70)</sup> 그러므로 이런 構造들은 信賴性과 他當性 이라는 두개의 주된 性質을 가진다.<sup>71)</sup> 또한 關係的 構造는 한 디시플린內에 있는 참된것, 확인된것, 입증된것 등과 확인되지 못한 것과는 뚜렷이 구별지워 주는 조작들과 관련지워져 있다.<sup>72)</sup> 그러므로 디시플린의 關係적 構造는 方法, 적어도 고도의 체계적 및 抽象的 해설로서의 方法과 같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關係적 構造는 그 디시플린에 要求되어지는 여러 種類의 證據物을 具體적으로 입증하는것, 即 要求되어지는 데이터들이 實際로 얼마만큼이나 획득될 수 있느냐, 어떤 類의 次善策을 利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해설적 問題를 제기하고 있느냐,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등과 같은 問題自體와 關係하는것이다.<sup>73)</sup>

Phenix는 구조의 조직方法에 對해서 Bruner나 Schwab와는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 Phenix는 각 디시플린은 하나의 全體로서의 研究分野를 典型化하는 가장 一般的인 것에서 부터 特殊한 下位特徵들에 까지 궁하는 特徵의인 諸方法과 概念들의 下位 段階(Hierarchy)로 分析되어질 수 있다고 보아,<sup>74)</sup> 代表的인 아이디어들이 段階的인 順序를 形成하여 構造를 操

68) Jerome S. Bruner,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6), pp.44-45.

69) Joseph J. Schwab, "Problems, Topics, and Issues," *Education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ed. by Stanley Elam (Chicago : Rand McNally Co., 1964), p.33.

70) *Ibid.*, p.35.

71) *Ibid.*, p.37.

72) Schwab, "The Concept of The Structure of a Discipline," p.205.

73) *Ibid.*, p.28.

74)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p.61-62.

作하는 아이디어의 階級적 順序(Hierarchical Order)가 구조의 操作양태이며 이 段階的 順序를 操作하는 아이디어는 前章에서 知識의 分類基準에 따라 分類된 各 知識領域에 따라 多様하다.

하나의 디시플린을 構成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段階的인 順序(Hierarchical Order)를 形成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sup>75)</sup>

(1) 頂點에는, (代表的인 性質에 있어서) 그 디시플린의 모든 部面에서 그 디시플린을 特徵지우는 소수의 概念들이 屬하고,

(2) 다음 段階에는, 主된 것으로 提示되는 어떤 推論된 아이디어들이 온다.

(3) 그 다음 下位段階에는, 그 디시플린의 많은 下位部分들을 위한 組織原理로서 사용되는 어떤 중요한 概念들이 온다. 그리고,

(4) 보다 下位단계에는, 教科의 여러 具體的인 問題들과 그 領域의 상세한 展開에 有用한 보다 具體的인 아이디어들이 分類된다.

(5) 段階的인 順序의 밑바닥에는 보편개념들의 特殊경우에의 적용을 반영해 주며 또한 特殊한 諸 條件內에서 효력이 있는 디시플린의 많은 개별적인 探究結果들이 나타난다.

이와같이 다섯단계로서 操作되는 아이디어의 階級적 順序는 各 領域에 對해 構成되어질 수 있다. 정점에는 전체 의미영역에 基本的인 아이디어들이 오고 그 다음에는 그 구성 디시플린들의 獨特한 特徵들이 오고 다음으로 各 教科(subject)의 여러 division들과 subdivision에서의 重要な 조직계급들의 順序가 따른다.<sup>76)</sup>

分類된 모든 知識領域에 아이디어의 階級적인 順序가 적용되긴 하지만 段階的인 順序를 形成하는 아이디어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各 知識領域에 따라 다르다. 가장 一般的인 段階에서 言語란 因習的인 상징적 構造로서 特徵지워지며, 이것은 言語知識을 經驗的, 審美的, 個人的, 道德的 및 概觀的 知識과 區別한다. 言語知識 以外의 이들 各各의 諸領域은 一般性이라는 同一한 High Order 의 代表的인 概念들에 依해서 特徵지워진다.<sup>77)</sup>

뿐만 아니라, 音素, 形態素, 文章論의 部類들의 概念은 일상언어에는 적용되지만 수학이나 非抽論的인 상징적 형식에는 適用되지 않는다. 집합의 基本的인 아이디어, 完全抽象 및 論理的인 一貫性등은 수학에 典型的인 것이 될지는 몰라도 다른 상징적 分野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상적 형태 의 아이디어와 도식적 의미의 아이디어는 非推論的인 상징적 形式과 特有한 關係를 形成하고 있다. 상징적 영역에 있어서 보다 낮은 代表性의 等級에는 日常言語에서의 語形變化, 수학에서의 변수, 非推論的인 상징적 형식에서의 몸짓들과 같은 重要な 아이디어들이 있고 代表的인 위계단계의 근거에는 具體的인 단어들과 단어계열, 具體的인 數學的인 명제, 具體的인 표상적 기호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sup>78)</sup> 同一한 知識領域內에서도

75) Phenix, *Realms of Meaning*, pp.324-325.

76) *Ibid.*, pp.325-326.

77) *Ibid.*, p.325.

78) *Ibid.*, p.325.

各 디시프린에 따라 相異한 概念들이 段階의 順序를 形成한다. 그러므로, Phenix 에 있어서 구조의 조작 양태는 하나의 段階的 順序라는 단순한 方式을 取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각 知識領域에 따라, 또한 각 知識領域內的 디시프린에 따라 相異한 아이디어들이 段階의 순서를 形成하므로 아주 多樣性을 띄고 있다.

代表的인 아이디어들이 그 代表的의 程度에 따라 다섯단계의 단계적 순서를 操作하지만 각 디시프린에 있어서의 단계적 순서의 組織原理, 곧 어느 概念에 우선을 두어서 操作하느냐에 대해서는 한 디시프린內的 諸 學者들 間에도 여러 相異한 見解들을 取할 수 있다고 한다. 要컨데, 그는 어떤 知識領域이든지 그 知識領域의 독특한 概念들을 단계적 순서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知識의 구조의 價値에 대해서 Phenix는 效果的인 學習과 關聯지워 이야기 하고 있다. 구조적인 特徵들은 교수 및 學習의 效果를 最大限으로 增加시키는 方法으로 교수자료를 선택하는 단서를 마련해 준다.<sup>79)</sup> 人智가 發達하고 文化유산이 많아짐에 따라 배울 교재는 점점 두터워져 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內容을 일정한 教育期間內에 모두를 가르친다는 것은 不可能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대한 知識을 效果있게 가르치자면, 知識의 구조중심으로 무한정한 學習內容을 組織하여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만약 하나의 디시프린內에 있는 지식이 어떤 類型에 따라 組織된다면 이때 이들 類型에 對한 完全한 理解란 바로 그 subject의 design에 맞는 많은 特徵的인 要素들을 理解하는데 效力이 있다.<sup>80)</sup>

Phenix는 學習對象의 構造를 파악하는 것과 效果的인 學習은 同一하다고 보고 있다. “어떤 效果的인 學習이 學習되어야 하는 것에 固有한 諸類型을 考慮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困難하다. 실로 아는것(knowing)이 구조에 關한 關心에 依存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實質的으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知識은 關係나 類型들의 認識속에 存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복은 우리가 어떤것의 性質을 알지 못하면 實地로 어떤 것을 理解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기에 어떤 것을 學習한다는 것은 그의 可知的인 類型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sup>81)</sup> 그러기 때문에 디시프린에 있어서 사고의 구조들은 학교내에서 야기되는 學習에 따라서 일어나야만 한다.

知識의 構造價値에 對한 諸 學者들의 見解를 살펴 보면, J.J. Schwab는 教育課程을 立案하고 教授資料를 마련할 적에 考慮되어진다고 하고,<sup>82)</sup> Klibard는 組織的인 知識領域中心으로 教育과정을 立案할 때 무엇이 基本的인 것으로 強調되어야 하고 무엇이 주변적인 것으로 경시되어야 하는가를 결정짓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다.<sup>83)</sup> 또한 Davis는

79)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62.

80) Phenix, *Realms of Meaning*, p.323.

81)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50.

82) Schwab, "The Concept of The Structure of a Discipline," p.197.

83) Herbert M. Klibard, "Structure of the Discipline As an Educational Slogan," *Teachers College Record*, Vol.66, No.7 (April, 1965), 600.

디시프린의 理解뿐만 아니라 학교 教育과정에서 바로 디시프린들을 活用하는 理由 追求에 必要하다고 한다.<sup>84)</sup> 이들 諸 學者들의 主張은 大體的으로 教育課程의 內容으로서 知識領域이 強調되어야 한다는 主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知識領域을 더욱 效果的으로 學習시키고 教授하기 위해서 知識의 구조를 더 重視해야 된다는 것이 Phenix의 主張이다.

Bruner도 “知識의 구조 - 그의 相互關聯과 하나의 관념에 다른 것이 따르도록 하는 因果關係 - 가 教育에서 適切히 強調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學習대상에 意味를 부여하고 새로운 經驗領域을 열어주는 것이 이 구조 - 즉, 關聯되어 있지 않은 觀察結果의 누적에 秩序를 가져다 주는 훌륭한 概念的 發明품이기 때문이다.”<sup>85)</sup> 고 하여 學習대상에 意味를 부여하고 새로운 探究活動을 일으키는 效果的인 學習과 關聯지워 구조의 價値를 認定하고 있고 특히 그의 저서 “教育의 過程(The Process of Education)”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sup>86)</sup>

첫째, 基本的인 것을 理解하면 教科를 理解하기 쉽게 된다.

둘째, 詳細한 部分은 그것이 構造化된 全體의 패턴 속에 자리 잡지 않은 것이라면 빨리 잊어버리게 된다.

셋째, 基本的인 原理나 概念의 理解는 適切한 “훈련의 전이”에 통하는 길이 된다.

넷째, 초등, 중등학교에서 가르치게 되는 교재를 그 基本的 성격의 觀點에서 끊임없이 살펴본다면 “高等”의 知識과 “初等”의 知識사이의 空白을 좁힐 수 있다.

이것은 知識의 構造란 것이 效果的인 學習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의 디시프린에서 다른 디시프린으로 轉移될 수 있는 모든 特徵들을 지적해 주며,<sup>87)</sup> 그러므로써 이 知識의 構造는 바로 教授의 效果를 높이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sup>88)</sup> Phenix의 思想과 共通되는 點이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Phenix에 있어서 知識의 구조란 것은 디시프린 가운데 있는 기본이 되는 개념이나 아이디어들이 體系化되어 있는 하나의 단계적 순서 (Hierarchical Order)이며 이와같은 구조는 그 디시프린의 탐구 對象內에 있는 여러 지식들을 가장 잘 단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하여 그 대상탐구에 必要한 여러 知識들을 繼續해서 學習해 가도록 學習의 진보를 위한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구조에 對한 관심이 最大學習이 일어나는데 充分한 條件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적성이나 성숙 및 동기들은 學習에 있어서 역시 중요한 要人들이라고 보면서

84) D. L. Davis, Jr., "Organized Knowledge Influencing Curriculum,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33, No.3 (June, 1963), 249.

85) Bruner, *On Knowing-Essays for the Left Hand*, p.120.

86) Jerome S. Bruner,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Press, 1962), pp.23-26.

87)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54.

88) Phenix, "The Disciplines As Curriculum Content," p.60.

디시플린의 구조에 대한 주의를 最大學習을 위한 充分한 條件이 아님과 同時에 그것은 이와같은 學習을 위한 하나의 必要條件<sup>89)</sup>이라고 보고 있다.

## V. 知識의 探究

Phenix에 있어서 知識을 探究한다는 것은 認識主體者 內에서 眞實在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認識主體와 認識對象의 相互 關係上에서 相對的인 眞理를 찾는 것도 결코 아니다. Phenix에 依하면 知識을 探究한다는 것은 바로 認識對象內에 담겨져 있는 眞實在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물의 구조는 나타나지는 것이지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구조를 적절한 概念과 理論의 形成을 通하여 一般的인 理解에로 開陳시켜주는 것이 탐구의 업무이다. 만약 人間이 통찰을 획득하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올바른 개념과 방법을 사용하여야만 한다”<sup>90)</sup> 고 말하는 Phenix의 主張을 보면 나타나게 되어있는 對象의 眞實在를 개념과 방법을 적용하여 찾아나가는 것이 탐구의 活動이라고 볼수있는 것이며 이와같은 탐구活動을 通해서 발견되어 지는 것 곧 탐구活動의 所産이 바로 知識이다.

教育에서 重要視되어야 될것은 이와같은 탐구活動의 所産보다는 탐구의 방법이라고 Phenix는 보고있다. 즉 그는 學生에게 어떤 분야의 具體的인 연구 調査의 結果를 學習하는 것보다 아는 방법(the ways of knowing)에 유능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強調하고 있다.<sup>91)</sup> 이렇게 탐구의 結果보다는 탐구의 방법 내지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知識 構造論을 信俵하고 있는 사람들의 一般的인 主張이다. Bruner는 物理를 工夫하는 학생은 物理學者인 것이며 그가 物理工夫를 잘 하려면 다른 어느 방법보다 物理學者가 하는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라고 말하고 있고,<sup>92)</sup> Broudy도 학생이 한 학문을 完全히 학습하기 위하여 반드시 理解하여야 할 諸 要素中에서 各 分野의 학문의 獨特한 탐구방법을 그 하나로 提示하고 있다.<sup>93)</sup>

그러면, 탐구방법은 무엇이며 그것은 또한 어떤 價値를 지니고 있기에 이와같이 重視되고 있는가? Phenix에 依하면 탐구방법이란 어떤 것을 行하는 方式(Ways of doing something), 즉 능동적인 조사 양태이며<sup>94)</sup> 여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과 그 지식을 확인하는

89) Phenix, "The Architectonics of Knowledge," p.50.

90) Phenix, "The Disciplines As Curriculum content," p.65.

91) Phenix, *Realms of Meaning*, p.11.

92) Jerome S. Bruner,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ss.: Havard Univ. Press, 1962), p.14.

93) Harry S. Broudy, *Building a Philosophy of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1), p.323.

94) Phenix, *Realms of Meaning*, p.341.

95) *Ibid.*, p.337.

(Validating)방법이 있다.<sup>95)</sup> 이러한 두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理由는 바로 知識은 발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확인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sup>96)</sup> 이 확인의 방법 역시 人間이 眞實로 어떤 知識의 의미를 理解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自己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單純히 검증하는 능력 또는 검증의 과정을 파악하는 능력을 所有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탐구의 結果를 축적하는 것 보다 더 重要하다.<sup>97)</sup>

知識을 發見하고 確認하는 이들 두 방법은 完全히 同一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別個인 것도 아니다. 言語를 學習하는 방법이 言語의 관용법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方法과 同一하지는 않다.<sup>98)</sup> 그러나 科學에 있어서 發見 방법은 가설의 형성과 검증을 包含하고 있으며 후자의 작용은 확인의 方法과 同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도안을 구성함에 있어서 화가의 方法은 완성된 作品에 대한 예리한 감상자의 반복적인 관찰과 評價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지식영역에서는 두 方法이 相互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다.<sup>99)</sup>

다음으로, 探究方法이 重視되어야 할 理由로서 탐구方法이 지니고 있는 價値에 대해서 살펴보자. Phenix는 人間을 本質的으로 의미를 發見하고 表現할 수 있는 意味의 動物로 보고 意味를 追求하고 意味를 充足하는 活動을 人間性의 한 本質로 보고 있다. 그러나 不幸히도 의미충족의 길은 결코 평탄한 것이 아니고 人類는 항상 意味를 파괴하는 諸 세력에 依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Phenix는 特別히 現代産業文明의 諸 상황下에서는 이러한 의미에 대한 위협이 더욱 더 強力해 졌다고 보면서 意味를 위협하는 諸 要因中 다음과 같은 네가지 要因을 特別히 強調한다.<sup>100)</sup>

첫째 要因은, 비판과 회의의 精神이다. 이러한 精神은 科學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모든 의미의 타당성에 새삼스럽게 의문을 불러 일으키는 傾向을 가져왔다.

둘째 要因은, 오늘날의 복잡한 相互依存의 社會가 극단으로 分化된 상태를 強要하는 나머지 個人의 生活이 기계적이고 종합적인 體系가 없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要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大量的 文化的 諸 산물, 특히 知的 面에서의 과잉인데 現代人은 여기에 어쨌든 同化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넷째 要因은, 生活條件의 급격한 變化 속도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무감과 不安感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

要컨데, Phenix가 意味의 主要 위협물로서 들고 있는것은 知的인 面에서 불매 바로 회 의주의(Cynicism), 분열(Fragmentation), 과잉(Surfeit), 일시성(Transcience)의 네가지로 볼수

96) Philip H. Phenix,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 Holt, 1966), p.311.

97) Philip H. Phenix, *Education and The Common Good*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61), p.39.

98) Phenix, *Realms of Meaning*, p.337.

99) *Ibid.*, p.337.

100) *Idid.*, p.5.

있는데 여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길은 바로 탐구方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이 Phenix의 주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탐구方法에 대한 관심이 의미의 위협물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로, Phenix에 의하면 좌절과 절망은 무지를 극복하는 方法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結果인 것이며 이러한 것은 아는방법(Ways of Knowing)이 有用할 때에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方法의 지식은 바로 회의의 精神을 理解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으로 대처시켜 줄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理解의 획득을 위한 分명한 수단을 提供해 주기 때문에 탐구方法의 理解는 바로 의미 위협의 첫째 要因인 회의주의(Cynicism)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한 領域內에 있는 知識의 具體的인 項目들은 모두 같은 종류의 共通的인 起源 즉 一連의 方法的인 原理內에 그들의 根源을 두고 있으므로 탐구方法은 바로 탐구의 모든 分理된 諸結果를 하나의 一貫된 연구 領域으로 함께 결합시키는 디시프린의 統合要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학문이나 그 분야의 연구가 도달한 모든 결론에 共通되는 方法에 의하여 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sup>101)</sup> 이러한 理由로 탐구方法의 理解는 바로 의미위협<sup>102)</sup>의 둘째 要因인 分열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탐구方法을 알고 있으면 많은 量의 축적된 知識을 心要로 하지 않게 되므로 과잉(Surfeit)이라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Phenix의 주장이다. “만약 누가 탐구方法의 諸 道具를 所有하고 있다면 그는 많은 量의 축적된 知識을 必要로 하지 않는다. 그는 特殊한 여러 사태의 諸 要求를 解決하기 爲하여 탐구도구를 改作하고 임시 變通할 수 있으며 他人의 결과에 덜 의존하게 된다.”<sup>103)</sup> 는 것이다 실제로 디시프린의 탐구方法은 탐구活動에서 결과되는 모든 具體的인 諸 발견을 包含하고 있으며 이러한 意味에서 탐구方法의 知識은 이것을 적용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는 모든 것에 對한 일종의 代用物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탐구方法의 利用이 學習의 경제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곧 탐구方法은 知識을 增加시키고 學習노력을 경제화하는 그들의 능력을 입증했다고 하는 Phenix의 주장<sup>103)</sup>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인 것이다.

넷째로, 探究의 方法은 그것의 適用을 통해서 얻은 諸 結果보다 훨씬 완만하게 變化된다. 勿論, 物理學에 있어서 뉴톤의 方法은 여러 重要한 점에서 Planck와 Einstein의 方法과 相異했으며 경제학에 있어서 Ricardo의 方法은 Keynes의 方法과 아주 달랐다. 마찬가지로 현대 역사가들의 諸 方法은 Herodotus의 方法과 相異하며 회화에 접근하는 Cezanne의 方法이 Michelangelo의 方法과 아주 相異한 것을 보면, 어떤 領域 또는 一般性的의 보다 下位 단계에서는 探究方法이 많이 變化하긴 하였다. 그러나, 言語, 科學, 예술, 도덕 및 개관적 디시프린의 各自 論理는 變치않고 지속된다. 言語의 관용법과 경험적인 諸 사실은 이들이

101) *Ibid.*, pp.11-12.

102) *Ibid.*, p.333.

103) *Ibid.*, p.317.

항상 그러했던 것과 똑같이 同一한 一般的 方式으로 오늘날도 정당화되며, 예술적, 개인적, 도덕적 및 통합적인 諸 活動의 基本的인 方法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變化되지 않는 것을 보면 一般的으로 탐구의 結果보다는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sup>104)</sup> 그래서 Phenix는 人間이 하나의 디시프린에서 진보하는 지식의 조류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不可能할지 모르지만 그 디시프린의 探究 方法과는 아주 만족스럽게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探究方法은 變換하는 現代生活에서 유래되는 일시성(Transcience)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基本的인 探究양식에 익숙해 지는 것이 단순히 많은 量의 단편적인 知識을 축적함으로써 變化하는 世界에 대처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效果的이고 바람직한 것이며, 나아가서 最適의 條件下에서 적절히 學習을 한다면 “學習하는 方法을 學習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sup>105)</sup> 고 하는 Bruner의 見解와 마찬가지로 探究方法에 注意를 기울이므로서 變化하는 內容에만 아니고 變化해가는 方法에 까지 적용하는데 有用성이 입증될 수 있는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106)</sup> 뿐만 아니라, 探究方法은 또한 學生들로 하여금 스스로 學習하는 능동적인 學習者가 되게하는 效果를 지니고 있다. 探究方法이란 諸 디시프린에서의 연구자들의 오랜 經驗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새로운 理解를 가장 잘 가져오는 方法들이다. 諸 方法은 연구자들에게 증명된 그들의 教授性的의 결과로 實用的인 方法으로서 채택된다. 이들은 전문가들이 自己들의 디시프린에서의 理解增進에 대개의 效率성을 입증한 思考의 양태인 것이다.<sup>107)</sup> 그러므로, 探究方法을 學習하므로서 學生들은 教科에 能動的인 종사를 하도록 격려를 받게되며 方法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는 Alfred North Whitehead가 “非活性 idea”라고 부른바의 수동적인 수납자(Passive recipient)로서의 역할을 取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108)</sup> 探究方法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價値는 特別히 學生들이 能動的으로 스스로 探究하여 發見의 기쁨을 맛보게 함을 하나의 重要한 指標로 삼고 있는 現代教育에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와같은 價値를 지니고 있는 探究方法은 하나의 論理的 類型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探究의 對象에 따라 그 對象에 적절한 探究양식이 있다. 그래서 Phenix는 經驗론자들이 주장하는 思考類型에 反對한다.

經驗론의 教育을 信奉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思考 즉, 문제를 解決하는 知性的인 生物學的의 유기체의 思考는 하나의 단순한 論理的 類型에 따른다. 이러한 類型에 對한 고전적인 記述의 근원은 Jone Dewey의 “How We Think”이다. 經驗론자들에 의하면 유기체의 衝동이 방해를

104) *Ibid.*, p.11.

105) Bruner, *The Process of Education*, p.26.

106) Phenix, *Realms of Meaning*, p.335.

107) *Ibid.*, p.341.

108) *Ibid.*, pp.335-336.

받아 만족이 가능한 諸 경로(Channels)로 自己의 에너지를 돌리기 위하여 어떤 方法을 모색하게 될때 思考가 일어난다고 한다.<sup>109)</sup>

Dewey는 그의 著書 “How We Think”에서 反省的 思考가 일어나는 단계를 다음과 같이 다섯단계로 設定하고 있다. (1) 시사(Suggestion), (2) 지성적 活動(Intellectualization), (3) 가설(Hypothesis), (4) 논증(Reasoning), (5) 가설의 검증(Testing the Hypothesis)이다.<sup>110)</sup> 여기에 對해서 Phenix는 기본적인 諸 意味類型의 分析은 思考가 경험주의자들에 依해서 옹호되는 科學的 문제 해결의 가정方法과 같이 다만 하나의 論理的 類型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러므로서 思考하는 方法이라는 質問에 한가지만의 回答이 주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sup>111)</sup>

要컨데, Phenix는 모든 有能한 思考가 다 연역적 論理의 規範이나 自然科學의 實驗的 調查의 規範에 따라 進行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學的, 心理學的 科學, 歷史的 研究, 哲學, 文學 및 기타 예술에 있어서 特殊하고 獨特한 思考方法들이 認知되고 또한 적절하게 應用되어질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sup>112)</sup> 이와같이 각 디시프린마다 모두 다른 디시프린과는 獨特한 思考의 論理를 所有하고 있기 때문에 탐구方法도 各各 다르다는 것이다. 즉 言語에 있어서 思考는 임의적인 상징적 구조유형에 따라 일어나며 예술에 있어서 思考는 제시된 具體的인 형태를 통한 지각적 추상에 依해 일어난다. 그리고 哲學的인 思考는 해석적인 概念들을 利用하여 諸 意味에 對한 分析的, 종합적, 비판적인 評價를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 VI. 結 論

Phenix의 知識理論을 究明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I. 知識의 性格

- 1) 知識이란 實在하는 認識對象內의 眞實在를 찾아내는 학문적인 탐구 活動의 結果이다.
- 2) 知識에는 학문적인 知識과 非학문적인 知識이 있는데 학문적인 知識이란 발견되어지는 知識을 일정 基準에 依해서 體系化한 것이며 非학문적인 知識이란 人間경험 혹은 活動에 依해서 이룩된 그대로의 非體系化된 知識이다.
- 3) 학문적인 知識은 독특한 論理를 所有하고 있으며 獨特한 領域을 가짐과 同時에 固有한 전통을 가지고 발전해 가며 때로는 소멸하기도 한다.

109) *Ibid.*, p.338.

110) John Dewey, *How We Think*(Washington, D. C. : D. C. : C. C. Heath, 1933) p.107.

111) Phenix, *Realms of Meaning*. p/338.

112) Phenix H. Phenix, “Values in The Emerging American Civiligation, *T. C. Record*, Vol, 61, No.7(April, 1960), p.358.

## II. 知識의 分類

- 1) 知識分類는 人間精神이 개념을 抽象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 하다.
- 2) 知識을 分類하는 目的은 學習을 容易하게 하기 爲한 것이기 때문에 認識對象이 지니고 있는 論理的 構造의 一般的 類似性이라는 基準에 따라 分類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3) 知識은 그 內包와 外延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인 分類에 따르면 9個의 領域으로 分類되고 의미의 領域에 따르면 6個의 領域으로 分類된다.
- 4) 分類된 各 知識領域은 獨特한 論理를 所有하고 있다.

## III. 知識의 構造

- 1) 知識의 構造를 形成하는 要素는 代表的인 概念(Representative Ideas)이다.
- 2) 知識의 構造를 形成하고 있는 概念들의 조작양태는 단계적 順序(Hierarchical Order)이다.
- 3) 知識의 構造價値는 效果的인 學習과 關係가 있다.

## IV. 知識의 탐구

- 1) 認識對象의 眞實在를 究明하는 것이 탐구活動이며 教育에서는 탐구 活動의 結果보다 탐구方法이 더 重視되어야 한다.
- 2) 탐구方法은 능동적인 조사양태이며 여기에는 知識을 획득하는 方法과 획득된 知識을 확인하는 方法이 있다.
- 3) 탐구方法은 人間의 의미 충족 活動에 위협을 주는 회의주의, 분열, 과잉, 일시성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價値가 있다.
- 4) 탐구對象에 따라 獨特한 탐구양식이 存在한다.

References

A. Authors :

- (1) Phenix, Philip H., *Education and The Common Good*, New York : Harper & Brothers, 1961.
  - (2) \_\_\_\_\_,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 Holt, 1966.
  - (3) \_\_\_\_\_, *Realms of Meaning*, New York : McGraw-Hill, 1964.
  - (4) \_\_\_\_\_, *Man and His Becoming*, New Jersey : Rutgers Univ. Press, 1964.
  - (5) Barr, A. S., Burton, W. H., Brueckner, L. J., *Supervision*,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1947.
  - (6) Broud, Harry S., *Building a Philosophy of Education*,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61.
  - (7) Bruner, Jerome S.,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62.
  - (8) \_\_\_\_\_, *Toward a Theory of Instruc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6.
  - (9) \_\_\_\_\_, *On Know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1962.
  - (10) Dewey, John, *How we Think*, Washington, D, C.: D. C. Heath, 1933.
  - (11) Goodlad, John I., *School Curriculum Reform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 The Fund for the Advancement of Education, 1964.
  - (12) Neagley, Ross L., & Evans, N. D., *Handbook for Effective Curriculum Development*, New Jersey : Prentice-Hall, 1967.
  - (13) Silberman, Charles E., *Crisis in the Classroom*, New York : Vintage Books, 1970.
  - (14) 이 경 섭, *현대교육과정론*, 서울 : 형설출판사, 1973.
- B. Articles:
- (1) Phenix, Philip H., "The Disciplines as Curriculum Content," A. Harry Passow (ed), *Curriculum Crossroads*,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1962. pp.57-65.
  - (2) \_\_\_\_\_, "Values in the Emerging American Civilization," *Teachers College Record*, Vol. 61, No. 7. (April, 1960), pp.355-370.
  - (3) \_\_\_\_\_, "Key Concepts and The Crisis in Learning," *Teachers College Record*, Vol. 58. No.3. (Dec., 1965), pp.137-143.
  - (4) \_\_\_\_\_, "The Architectonic of Knowledge," Stanley Elam(ed.), *Education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Chicago : Phi Delta Kappa, 1964, pp. 44-62
  - (5) Albery, Harold B., & Albery, Elsie J., "Utilizing Curriculum Sources in Education," *What are the Sources of the Curriculum*, Washington, D. C.: ASCD/NEA, 1962. pp.30-31.
  - (6) Davis Jr., D. L., "Organized Knowledge Influencing Curriculum,"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33, No.3, (June, 1963), p.249.
  - (7) Klibard, Herbert M., "Structure of the Discipline as an Educational Slogan," *Teachers College Record*, Vol.66, No.7. (April, 1965). p.600.
  - (8) Schwab, Joseph J., "Problems, Topics, and Issues," Stanley Elam (ed), *Education and the Structure of Knowledge*, Chicago : Rand McNally, 1964, pp.11-33.
  - (9) \_\_\_\_\_, "The Concept of the Structure of a Discipline," *The Educational Record*, Vol.43. No.3, (July, 1962), pp.197-203.
  - (10) 이 경 섭, "Discipline in the Curriculum Theory : On The Structure of Discipline," *慶北大學校 論文集 (文.社)*, Vol.12.(1968,12), pp.177-199.